

그러기는커녕 이젠 이 땅에도 가진 것 하나 없구나.”

비르지니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네.

“오빠한테는 성 바오로의 초상화가 있잖아.”

비르지니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, 폴은 어머니가 계신 오두막으로 그림을 찾으러 달려갔어. 그 초상화는 은수자 성 바오로●가 그려진 작은 세밀화였네. 마르그리트는 그 그림에 두터운 신심을 갖고 있었기에, 소녀 시절부터 오랫동안 목에 걸고 다니다가, 엄마가 되고 나서는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지. 그녀가 폴을 임신하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때도, 이 축복받은 은수자의 초상을 묵상한 덕분에 아이가 그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닮게 된 것일세. 그래서 마르그리트는 성 바오로를 아들의 수호성인으로 삼아,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기로 결심했네. 자기를 기만했던, 나중에는 자기를 버렸던 인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평생을 보낸 성인이었지. 비르지니는 폴이 두 손으로 건네주는 이 작은 초상화를 받아들면서 가슴 벅찬 목소리로 말했네.

“오빠, 내가 살아 있는 한 절대로 내 몸에서 떨어트리지 않을게, 그리고 오빠가 이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것을 내게 줬다는 것을 잊지 않을게.”

이처럼 우애 넘치는 목소리에, 예상치도 못하게 되살아난 이런 친밀감과 다정함에 폴은 그 아이를 껴안고 싶었지만,

---

● 이탈리아 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맥으로 이탈리아의 주요 강들은 모두 이 산맥에서 발원한다. 최고봉은 코르노그란데산으로 해발 약 2,912m에 달한다.